즉시 배포용: 7/31/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전국 열사병 예방일을 맞이하여 뉴욕주민들에게 "잠그기 전에 보고" 아이를 열사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

뜨거운 차량에 남겨진 후에 매년 수 십명의 아기, 유아 및 어린애들이 부상 또는 사망

열사병 위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부의 새 비디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이번 여름에 "잠그기 전에 보고" 아이를 뜨거운 차량에 남겨 두는 위험에 대해 인식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전국 열사병 예방일을 맞이하여 주지사와 여러 뉴욕주 기관들은 아기, 유아 및 어린애들을 자동차에 남겨두는 것의 치명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주민들이 아이를 열사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 안의 더운 온도와 아이는 치명적 조합이 될 수 있는데 뉴욕주에서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비극을 야기해 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바깥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민들이 특별히 주의하여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고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하이웨이교통안전청 (NHTSA)에 따르면:

- 2014년에 뉴욕주의 1명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 남겨진 후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이미 8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습니다.
- 1998년 이래 미국에서 630여명의 어린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그러한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이 차량 안에 두고 잊혀졌습니다; 약 30%는 스스로 접근하여 탔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17%는 성인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 단 10분만에 자동차는 온도가 20도 상승할 수 있는데, 창문을 내려도 종종 차를 식히지 못합니다.
- 열사병은 구름낀 날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겨우 57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부 차장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차된 차에 아이를 남겨두기에 안전한 길이의 시간이나 타당한 이유는 특히 위험이 매우 높은 여름에는 없습니다. 전주의 운전자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주민들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를 수송하는 사람은 미리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여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뜨거운 차량에 남겨진 결과 열사병으로 사망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예방적 주의 조치가 이러한 비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부모들과 보호자들은 주차된 차량에서 작은 아이들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인 환기 수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DOH)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에 “뜨거운 차에서 아이를 내리세요!”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내놓았습니다여기에서 볼 수 있음.
보건부 관리들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를 열사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홀로 뜨거운 차량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팁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 아동 보호자에게 당신의 아이가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특히 루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당신에게 전화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야 함을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휴대폰에 리마인더나 알람을 설정하거나, 당신의 아이를 등교 또는 하교시켰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당신에게 전화하게 하십시오. 이는 특히 귀하의 루틴이 바뀐 경우 또는 귀하가 지쳤거나 주체를 못할 때 중요합니다.
- 자동차에 있는 동안 보이는 곳 즉 대시보드 또는 다른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및 언제 픽업하거나 데려다 줘야하는지를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실(OCFS) 실장 대행 Sheila Poo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차문을 잠그기 전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에 뒷좌석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아와 어린애들은 심한 열기에 특히 민감하며 뜨거운 차량에 남겨지면 신체 온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를 주차할 때 뒷좌석을 점검해야만 하도록 핸드백, 지갑 또는 브리프케이스 같이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아이 옆에 두십시오.”

뜨거운 차에 홀로 있는 아이를 보는 사람은 운전자가 돌아오기까지 2~3분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 911에 전화하고, 차에서 아이를 꺼내어, 가능하면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분무해야 합니다.
-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를 찾도록 시키거나 시설에 운전자를 찾는 방송을 부탁해야 합니다.
- 열사병 징후를 인지하십시오:
  - 피부가 빨갛고, 뜨겁고 촉촉하거나 건조하다.
  - 땀을 흘리지 않는다.

- 비정상적 맥박.
- 구역질.
- 혼동 또는 이상한 행동.

뉴욕주 특별니즈인정의센터 특별검사/감찰관 Patricia E. Gunn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도가 치솟을 때 우리는 종종 차 안에 아이 홀로 남겨두는 것의 위험에 대해 상기하지만 사람들은 장애나 특별니즈 성인도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의센터는 이 따뜻한 날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 자원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방 스폿라이트 툴키트에는 열사병 위험에 대한 포스터 및 비디오 갤러리와 운전자, 운송 보조 및 일반인이 우발적 비극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핸드 태그와 차량 점검 안전 팁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사병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NHTSA가 조직한 전국적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현재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해시태그 ***#heatstrokekills*** 및 ***#checkforbaby***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